

이재명 “주 4.5일제 도입” vs 김문수 “주 52시간제 개선”

양 후보 노동 공약 입장차 ‘뚜렷’ 이, ‘노동 존중’ 노란봉투법 개정 김, 청년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6·3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노동 공약은 근로시간, 계속고용, 노동권 등 대부분 정책에서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후보는 노동 공약을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김 후보의 공약은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주 4.5일제·정년연장 추진 공약…노란봉투법 재추진도 약속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10대 공약의 한쪽지로 ‘노동 존중 사회 구현’을 꼽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노동 공약에는 노동계 숙원인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과 주 4.5일제 도입, 법적 정년 연장 등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으로, 2015년 처음 발의됐다. 민주당 주도로 이미 두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만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난히 추진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고품질 사회에 대비한 계속고용 정책으로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품질 고용정책으로 기간 퇴직 후 재고용, 법적 정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는데, 현 정부는 재고용 방안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계와 민주당은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해왔다.

주 4.5일제의 경우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다.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차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추가근무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 또한 근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규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정책 또한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때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주장한 바 있고, 민주당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한 만큼 이 후보 당선 시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문수, 일자리 창출 방침…“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의 첫머리에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배치하면서 세부 공약 가운데 하나로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을 제시했다.

평소 근로자들이 잘되려면 기업이 잘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김 후보는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방향으로 근로시간 관련 정책을 펴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는 노동부 장관 시절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반도체특별법을 옹호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는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자에 한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10년 내 한시적으로 유효한 법을 생 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또한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무 형태를 조절하는 ‘유연근로형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근무 시간 자체를 단축하기보다는 유연근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적 정년 연장에 반대해 온 김 후보는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장려’,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당선 시 노동정책의 방향은 ‘일자리 창출’에 돌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과 부담금을 줄이는 혜택도 주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자본·기술·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실현하겠다”며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



“대통령선거 꼭 투표하세요”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광주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차고지에서 북구 직원과 공단 직원이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투표표지와 시간이 적힌 21대 대통령 선거 독려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

민주 “김문수는 내란 옹호 후보” 국힘 “이재명은 거짓말하는 후보”

선거운동 이틀째 거칠어지는 캠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거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란 극우 후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전남 김 후보가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데 대해선 ‘위장 사과’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제명을 압박했다.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김 후보는 위장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출당 조치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의 방법이며,

내란을 옹호·선동한 정권훈 목사라도 단호히 결별 하라”고 요구했다.

전준호 전략본부장은 “이재명은 국민을 섬기는데, 김문수는 정권훈과 윤석열을 섬긴다”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일 때도 내란에 동조·옹호했고 대선 후보가 된 지금도 제대로 사과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계엄과 내란에 따라 치러지는 대선에서 아스팔트 극우 세력을 대변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후보에 대한민국을 맡기겠다”라며 “극우 내란후보 아마추어”가 김 후보의 본질 이자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범죄자”, “위선과 가짜”라고 비판 했다.

권성동 공동선대위위원장은 국민의힘 대구시 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 “김문수 후보는 청렴결백한 정치, 일 잘하는 정치, 깨끗한 정치고, 이 후보는 거짓말 잘하는 정치, 말 수시로 바꾸는 정치,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정치”라며 “김 후보는 파주 LG산업단지를 만든 분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다.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공동선대위위원장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 앞으로 대한민국은 선거도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며 “민주당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도 탄핵하고 특검하고, 정문회로 위협한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 조짐이 벌써 보인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5·18 진실 복원…전남도, 구술채록 사업 추진

전남도는 13일 “5·18민중항쟁 구술채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5·18기념재단과 함께 1980년 5월 전남지역에서 진행됐던 5·18민중항쟁의 진실을 복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남도는 기존 구술기록과 자료를 조사, 분석하는 등 전남의 5·18 관련 사진 연구를 진행한 뒤 항쟁 참여도와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민주화운동 당사자, 목격자, 가족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구술을 수집할 예정이다. 또 구술채록을 통해 만들어진

영상을 향후 건립될 5·18 기념공간 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의 5·18민중항쟁 구술채록은 산발적으로 진행돼왔지만, 이번 구술채록은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역사 자료 제작을 목표로 하면서 전남의 5·18 민중항쟁사 전반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한다.

전남도는 2026년까지 구술채록을 마치고 2027년부터 전문가 자문과 검증을 거쳐 구술기록집을 출판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시, 이혼가정 부모-자녀 만남 돕는다

‘면접교섭 서비스’ 본격 지원

광주시가 이혼가정의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혼 등으로 양육환경이 급변한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본격 지원한다. ‘면접교섭 서비스’는 이혼 등으로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비양육 부모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광주시는 ‘만남방(면접교섭) 센터’로 지정된 광

주동구·남구·북구가족센터 등 3개 기관을 통해 면접교섭의 방법·시간·장소·자녀 인도 방식 등에 대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성년 자녀의 심리상담과 교육, 부모와 자녀 간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을 함께 지원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돕는다.

광주시는 면접교섭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가족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하도록 신뢰 회복과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환

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대표전화 또는 각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이나 신청을 하면 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이혼 등으로 정서적 불안 겪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상담 연계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2024년 통계청 자료 분석결과 광주지역 이혼건수는 총 2258건(협의이혼 1829건, 재판이혼 429건)으로 전국 이혼건수(9만1151건)의 약 2.47%를 차지하며, 이로 인한 서비스 대상 미성년 자녀 수는 1129명으로 추산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